



미 증시, ADP 민간고용 부진 속 금리 인하 기대감 확대 등으로 상승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3일(수) 미 증시는 ADP 민간고용 부진, ISM 서비스업 지표 내 고용 지수, 가격 지수 둔화 속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확대된 영향으로 3대 지수 상승 마감. 다만, 장중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제품 판매치 하향 조정 뉴스 등이 빅테크 투자심리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기민감주, 중소형주로 자금 로테이션 나타난 점이 특징적 (다우 +0.86%, S&P500 +0.30%, 나스닥 +0.17%)

셋다운으로 11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지연(12월 16일 발표 예정)되면서 ADP 민간 고용이 연준 통화정책의 주요 바로미터로 작용. 이 날 발표된 11월 ADP 민간 고용은 3.2만명 감소하며 예상치(+1만 명)와 전월 수정치(+4.7만 명)를 대폭 하회, 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 기록. 이러한 가운데 11월 ISM 서비스업 PMI는 전월 대비 상승(52.6pt vs 전월 52.4pt)하며 확장 흐름 지속. 다만, 세부 지표 내 고용지수(48.9pt vs 전월 48.2pt)는 여전히 위축 국면(50pt선 이하)을 이어갔고, 가격지수(65.4pt vs 전월 70.0pt)는 전월 대비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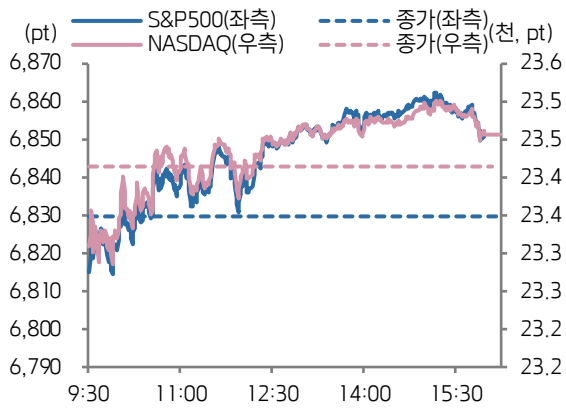
이 같은 고용 둔화 + 물가 하락의 조합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확대시키는 기제로 작용. 여기에 최근 들어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케빈 해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에 유력하다는 소식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확산시키는 요인. 이에 Fed Watch 기준, 현재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89.0%로 집계되는 상황. 이 같은 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기대감 확대(12월 1일 이후 연준 양적긴축 종료, TGA 방출 재개) 속 중소형주로 순환매 로테이션 이어지며 러셀2000(+1.91%)이 큰 폭 반등한 점이 특징적.

한편, 이 날 AI 관련해서는 일부 노이즈가 존재, 마이크로소프트(-2.5%)의 AI 제품 판매 목표치 하향 조정 루머가 이 날 기술주 투심 악화 재료로 작용. 자칫 AI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될 수 있었지만, 이후 MS 대변인 측은 'AI 제품 판매 할당 총량은 하향 조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일부 진정세. 그 외에 세일즈 포스는 장 마감 이후 예상치를 상회하는 차분기 가이던스 제시, AI 에이전트 서비스(ARR) 부문 실적 YoY 114% 상승 등에 힘입어 시간 외에서 3~4%대 상승 중. AI 관련 호재, 악재 뉴스가 교차하며 출현하는 가운데 12월 중 AI 투자심리를 결정할 수 있는 브로드컴 실적(12월 11일) 등에 주목해볼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케빈 해시 위원장 차기 연준 의장 유력 보도 속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확대, AI 고평가 우려 완화 속 반도체, 원전, 방산 등 기존 대형 주도주로 외국인, 기관 자금의 로테이션 진행된 결과 코스피 중심으로 상승 (코스피 +1.04%, 코스닥 +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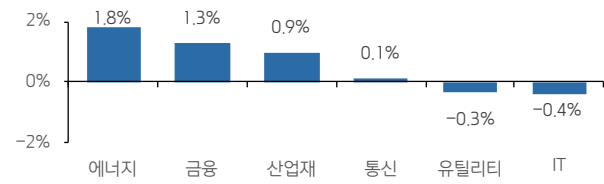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도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확대 등이 성장주 강세 재료로 연결되며 바이오 등 금리 하락 수혜주 중심으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 한편, 연말 연초로 갈수록 국내 증시는 새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감도 재차 높아질 수 있는 국면. 지난 2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2026년 예산부수법안 국회 통과한 가운데 연내 자사주 소각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 코스닥 활성화 정책 등 추가적인 정부 정책 모멘텀도 유효한 상태. 이익 모멘텀이 양호한 반도체 등 기존 주도주의 비중은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 관련 수혜주 중심의 트레이딩을 통해 초과수익률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구간.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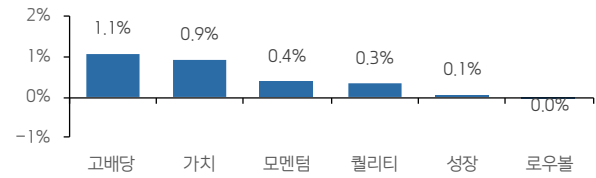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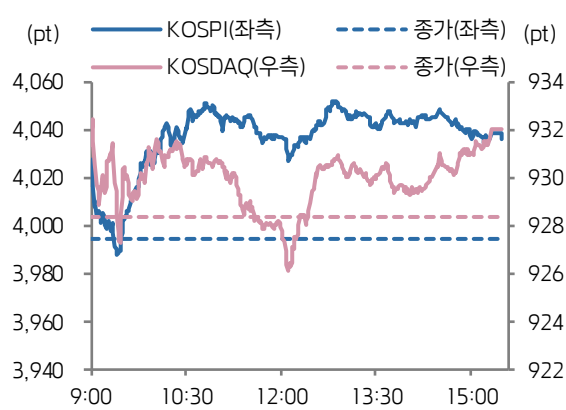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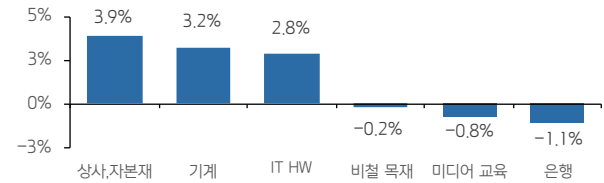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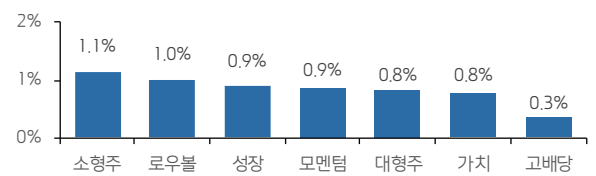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84.15	-0.71%	+13.98%	GM	74.69	+1.4%	+41.38%
마이크로소프트	477.73	-2.5%	+14.18%	일라이릴리	1,033.56	-1.2%	+34.88%
알파벳	319.63	+1.21%	+69.4%	월마트	114.41	+1.78%	+27.58%
메타	639.60	-1.16%	+9.49%	JP모건	312.13	+1.38%	+32.97%
아마존	232.38	-0.87%	+5.92%	엑손모빌	117.80	+2.1%	+13.53%
테슬라	446.74	+4.08%	+10.62%	세브론	151.59	+0.89%	+9.51%
엔비디아	179.59	-1.03%	+33.76%	제너럴일렉트릭	114.41	+1.8%	+27.6%
브로드컴	380.61	-0.25%	+65.34%	캐터필러	591.49	+1.55%	+65.52%
AMD	217.60	+1.1%	+80.15%	보잉	202.54	-1.38%	+14.43%
마이크론	234.16	-2.23%	+179.03%	넥스트에라	84.95	+0.4%	+22.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4,036.30	+1.04%	+68.21%	USD/KRW	1,466.90	-0.11%	-0.37%
코스피200	570.79	+0.9%	+79.6%	달러 지수	98.91	-0.45%	-8.83%
코스닥	932.01	+0.39%	+37.43%	EUR/USD	1.17	+0.35%	+12.67%
코스닥150	1,619.57	-0.04%	+43.35%	USD/CNH	7.06	-0.12%	-3.81%
S&P500	6,849.72	+0.3%	+16.46%	USD/JPY	155.28	-0.38%	-1.22%
NASDAQ	23,454.09	+0.17%	+21.46%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7,882.90	+0.86%	+12.55%	국고채 3년	3.037	+1.7bp	+44.2bp
VIX	16.08	-3.07%	-7.32%	국고채 10년	3.365	+2bp	+49.4bp
러셀2000	2,512.14	+1.91%	+12.64%	미국 국채 2년	3.484	-2.5bp	-75.8bp
필라. 반도체	7,280.51	+1.83%	+46.2%	미국 국채 10년	4.059	-2.7bp	-51bp
다우 운송	17,030.51	+2.01%	+7.14%	미국 국채 30년	4.727	-1.9bp	-5.4bp
상해종합	3,878.00	-0.51%	+15.7%	독일 국채 10년	2.747	-0.2bp	+38bp
항셍 H	9,028.55	-1.68%	+23.85%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85,106.81	-0.04%	+8.92%	WTI	58.95	+0.53%	-13.16%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62.67	+0.35%	-16.04%
Eurostoxx50	5,694.56	+0.15%	+16.31%	금	4,232.50	+0.28%	+51.64%
MSCI 전세계 지수	1,003.11	+0.2%	+19.23%	은	57.92	-0.11%	+98.07%
MSCI DM 지수	4,385.76	+0.17%	+18.28%	구리	530.80	+2.85%	+31.83%
MSCI EM 지수	1,373.87	+0.41%	+27.74%	BDI	2,600.00	+0.66%	+160.78%
MSCI 한국 ETF	93.00	+1.01%	+82.75%	옥수수	443.25	-1.5%	-2.64%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38.25	-0.51%	-12.3%
비트코인	93,290.89	+1.83%	-0.45%	대두	1,116.25	-0.76%	+7.98%
이더리움	3,148.11	+5.03%	-5.93%	커피	372.45	-0.27%	+33.3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2월 3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